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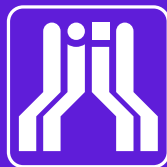
제19회군포

예술제
예술

The 19th gunpo artist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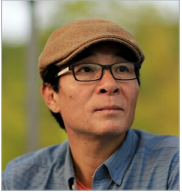
예술로

다시
모두의 곁으로



사단
법인 군포 예술

모시는 글



군포예총회장
강신웅

여름의 끝자락에 제19회 군포예인예술제 ‘다시, 모두의 곁으로’의 막을 올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군포예총과 8개 지부 회원들의 정성과 예술혼이 담긴 땀과 노력의 결실을 펼치는 공간으로 전시되는 회원들의 작품과 공연 하나하나가 소중한 군포문화예술의 자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명 나는 예술인의 축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올해의 부제처럼 예술이 다시 모두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감상할 수 있어 올해의 예술제는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월 군포예총과 서귀포예총간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귀포 국악협회, 무용협회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멀리 서귀포에서 이곳까지 방문 해 주신 윤봉택회장님과 예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폭넓은 예술교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예술은 특정 전문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고 시민들은 예술가의 작품 결과물을 감상하고 공유하면서 문화예술의 결실을 만듭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예인예술제는 군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의 장입니다.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협회는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만족 시켜 드릴 것입니다. 또한 문인, 미술, 사진작가협회는 작품 전시와 출판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군포예술인의 축제 한마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9회 군포예인예술제 개막식과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은호 군포시장님, 이학영 국회의원님, 이길호 시의장님과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예술팀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 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군포시장
하은호

군포 예술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9회 군포 예인예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예술제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웅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 예인예술제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지역에 활력을 주는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번 제19회 군포 예인예술제를 통해 군포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제19회 군포예인예술제 기간에는 8개 지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하나 되어 생활의 활력을 찾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예술제를 개최하고 참여해주신 군포예총 및 각 지부 예술인들께 감사드리며 군포시의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드디어, 예술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한국예총 군포지회 8개 지부 회원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예술과 군포시민에 대한 애정이 제19회 군포예인예술제의 개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초막골생태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반월호수공원, 당정근린공원 등 군포 시민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명소에서 개최될 올해 군포예인예술제의 주제는 '예술, 다시 모두의 곁으로' 라고 합니다.

미술협회의 전시를 시작으로 사진, 연예, 무용, 연극, 국악, 음악, 문인까지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우리 생활공간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곁으로 예술을 돌려준 군포예총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이번 예술제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군포를 찾아주신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군포시민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아름다운 제주민요와 제주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무용을 보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예술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시기는 예술인들에게 큰 고난이었지만,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갈증을 느낀 군포시민들에게도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이번 예인예술제의 개최가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고난과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양성을 갖춘 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문화 창달의 신호탄이 되기를.

군포시의회도 '문화도시 군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와 정책의 개발 등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실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문화도시 군포'라는 이름에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가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포 시 의 장
이 길 호

축사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군포예인예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술, 다시 모두의 곁으로'라는 올해 예술제의 부제가 반갑기만 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공연과 작품들을 화면으로 즐길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드디어 시민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되다니 무척 기쁩니다.

우리 군포시에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있어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때론 어렵기도 하고 종종 멀리 느껴지는 예술을 쉽고 재밌게 풀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준 높은 작품과 공연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해주는 군포시 예술인들 덕분에 군포시민의 일상과 삶은 한층 더 풍요롭고 활기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귀포예총과의 교류체결로 예술제가 색다르게 꾸며질 것 같아 더욱 기대됩니다. 멀리 서귀포에서 방문해 주신 윤봉택회장님을 비롯한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감동과 행복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9회 군포예인예술제를 준비해주신 군포시 예술인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황리에 예술제가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군포시 국회의원이자 한 사람의 작가로서 예술이 가득한 군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이 학 영

개막식

8 / 27(토) 16:00 (반월호수 수변무대)

사회 안재덕

- 개회
- 개회사
- 축사
- 지부장단 소개
- 예술공로상 시상 ----- 이영호
- 군포예술상 시상 ----- 최남희
- 초청공연 -----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국악협회/무용협회)

다시
문투의

군포예술상 수상자

최남희

- 시인, 자유기고가
- 전 군포문인협회장
- 전 군포문화재단 팀장
- 군포예총25년사 편집위원장
- "길위에서 섬을 얻다-군포수릿길" 저자



예술공로상 수상자

이영호

- 군포신문사 대표이사
- 전 국립문학관 군포시유치위원회 간사
- 전 한국지역신문협회 상임부회장
- 전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장
- 전 GTX 군포시유치위원회 공동대표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초청공연

작품 소개

제주민요

-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10곳을 노래로 그린 영주10경, 제주의 대표적 타령으로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이야흥 타령과 신민요로 제주의 자연과 삶을 노래한 제주아리랑 등 연주
- 출연자 : 오영희 김복순 현세미 양애자

신(新)영이자랑(안무 박연술)

- 제주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신이 보살펴준다. 생명 탄생과 관련된 삼승할망, 바람의 신 영등할망, 축복의 신 설문대할망... .. 제주의 아이는 신들의 보살핌 속에 제주의 바람과 꽃으로 성장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물허벅 아리랑(안무 박연술)

- 제주 여인의 삶은 한라산의 품에서 하늘의 흐름을 깨닫고 제주 바다에서 도리를 알아가며 밭에서 겸손을 배우는 일상에서 자신을 맡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이 작품은 그 삶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출연자 : 박영신, 정옥남, 양은녕, 강은미, 박향순, 고성미, 한은경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1958년 2월 창립
지회장 윤봉택
부지회장 강경훈, 박재빈
감사 김은희, 이봉훈

회원단체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서귀포지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서귀포지회

연예예술인협회 정기연주회

8 / 26(금) 15:00 (산본로데오거리)

- 연주프로그램

Old pop : Blueberry Hill, /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 I can't stop loving you / Sweet caline

K-pop : 아름다운 강산 /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 라라라 / 재회 / 꿈의대화

군포의 노래 : 철쭉 꽃비가 내리면 / 벚꽃길에서

- 출연진

사회/안재덕 / 색소폰-최재훈(KBS악단) / 트럼펫-우경서

일렉트릭 기타-서강철(KBS악단) / 드럼-임길상(장윤정콘서트 드러머)

키보드-임진성(전 옥스 멤버) / 베이스-남귀수(KBS악단)

보컬-신나 / 일렉기타, 하모니카, 보컬-강신웅



춤을 그리며 다시 날다

8 / 26(금) 17:00 (산본로데오거리)

사회 - 최남희

축하공연 (군포시 청소년 무용단)

탐버린 축제: 유정원, 김주원, 송서진

소고춤

출 연 : 신동현, 박지윤, 홍슬은, 김경연, 정유하, 정유진, 김주원, 박인희, 안영은, 송서진, 이시은

반 주 : 정성용, 이준호, 설원임, 서경혜

주마등 (제31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대회/ 은상 · 우수 안무가상 수상작)

삶의 저편 경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지나간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생(生)의 화려한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리라.

출 연 : 김은희, 오승우, 이연주, 고은빈, 김여진, 이하라

진도복춤 - 김은희

진도복춤은 故 박병천 선생에 의해 널리 알려진 춤으로, 농요에 맞춰 특유의 복춤사위와 가락이 농축된 결실의 작품이다

돈이 양반이라 - 오승우

돈으로 활개치는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

인요(人妖), 지지못해 피어우니 - 신한서

뿔뿔한 도리에 벗어난 묘사스럽고 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여자가 남자로 변복하고 남자가 여자로 행세하는 따위.

광복, 나의 땅!

광복77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린다.

출 연 : 지나리, 이연주, 고은빈, 김여진, 오승우, 박세훈, 신한서, 이하라, 이다엘, 박지윤, 홍슬은, 김경연

[출연]



김은희



오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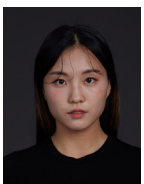
이연주



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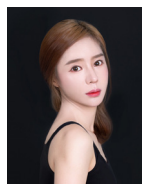
고은빈



김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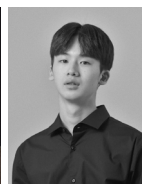
진가득



지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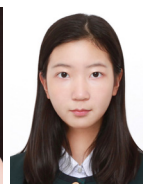
박세훈



신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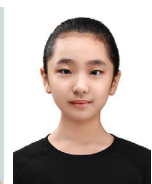
이다엘



박지윤



홍슬은



김경연

마당극 배비장전

8 / 27(토) 17:00 (반월호수 수변무대)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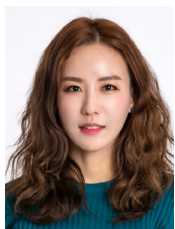
판소리 배비장전을 트로트 뮤지컬 마당극형식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줄거리는 한양에 살던 김정이 제주목사에 제수되자, 서강에 사는 배선달을 불러 예방의 소임을 맡긴다. 배비장은 아내에게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제주도로 떠난다. 사또 일행은 제주도에 도착하여 외로움을 달래줄 제주기생과 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배비장은 결코 여색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한다. 이에 방자는 배비장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사또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이 기생과 함께 즐길 때에, 배비장은 도덕군자를 자처하며 도도하게 군다. 그러자 배비장을 풀려 주리라 작정한 제주 목사는 배비장을 휘젓시킬 기생을 찾고, 애랑이 이 일에 자원한다.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하고 목사 및 다른 비장들과 함께 한라산 놀이를 떠난 배비장은 기생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다. 애랑의 자태를 잊지 못해 상사병에 걸린 배비장은 방자를 시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그녀에게 전달한다. 방자는 서신을 애랑에게 전달하고, 애랑의 허락을 받은 배비장은 한밤중에 개가죽 두루마기에 병거지를 쓰고 담 아래 개구멍을 통해 애랑의 집으로 들어간다. 애랑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배비장은 그녀와 함께 운우의 정을 나눈다. 이때 갑자기 바깥에서 고향치는 소리가 들리고, 애랑은 배비장에게 자신의 남편이 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향소리의 실제 주인공은 방자이다. 몸을 숨길 곳을 찾던 배비장은 애랑의 말에 따라 자루 속으로 들어가고, 자루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묻는 방자의 물음에 애랑은 거문고라고 답한다. 방자가 자루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통기자 배비장은 거문고 소리까지 내며 벌벌 떠다. 잠시 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비장은 자루 밖으로 나와 다시 애랑의 권유대로 피나무 궤 속에 숨는다. 그러자 애랑의 남편으로 가장한 방자가 들어와 자신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와 궤를 불사르라 했다고 말한다. 애랑은 그럴 수 없다며 만류하는 체하고, 방자는 궤를 공평하게 나누자며 톱질을 시작한다. 그러자 배비장은 귀신소리를 내며 이 궤를 계집에게 주라고 소리친다. 이에 방자는 궤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 뒤, 궤를 짊어다 동헌 마당에 내려둔다. 배비장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궤 안에서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어부에게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한다. 드디어 배비장이 헤엄을 치면서 궤 밖으로 나와 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관청 마당이었고, 목사와 육방 관속, 기생들이 둘러서서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

[출연]



사또/이진영



애랑/조예원



배비장/김진호



방자/김영환



기생/임영란



기생/김은비

[스텝]



연출/조현건



무대감독/이병술



음향감독/우지영



분장/윤미란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한마당

8 / 28(일) 17:00 (반월호수 수변무대)

[PROGRAM]

사회 안귀영

1. The Circus bee ----- Henry Fillmore
2. 꽃구름 속에 ----- 이 흥 렬
(Sop. 김은경)
3. 투우사의 노래 ----- G.Bizet
(Bar. 우재기)
4. 내 마음의 강물 ----- 이 수 인
(Sop. 김은경, Bar.우재기)
5. Paso Doble Ole ----- Arr. N. Tailor
6. Pirates of the Caribbean ----- Arr. John Wasson
7. 태클을 걸지마 ----- Arr. 김애라
(Pf. 장미정)
8. American Graphity V ----- Arr N. Iwai
9. Korea Sound Collection III ----- Arr. 최완규

연주자



사회자/안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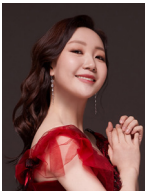
지휘자/안재찬



피아노/장미정



바리톤/우재기



소프라노/김은경



군포윈드오케스트라

음악감독&기획 / 황일화

군포윈드오케스트라

Fl. 한수연 / Ob, 김예은 / Bn, 하도연 / Cla, 안종현, 이다영, 장기업 / A.Sax, 하동주 / T.Sax, 빈재현 / Bar.Sax, 황도현/ Hn, 김태우, 김상선
Tp, 조성훈, 최주호 / Eup, 이진영 / Tb, 조민철, 김희애, 유광수 / Tuba, 정주혁 / Perc, 한송이, 고은총 / B.Guitar, 김동연

국악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8 / 28(일) 16:00 (반월호수 수변무대)

사회 이영미

천고의 울림-----한얼국악예술단

북은 태초의 악기이다. 인간의 가장 정신적인 악기이기도 한 대북의 깊은 공명의 울림을 씨브 음악과 함께 역동적이면서도 강렬한 연주곡

행복을 노래하다-----국악실내악단 비상

밝고 경쾌한 연주곡으로서 타악기의 현란한 리듬과 선율악기의 연주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만든 연주곡

널 좋아해-----보컬 한재영

영국 극작가 사라캐인의 도발적이면서도 집착적인 사랑의 내용을 인용하여 사랑이 시작되는 마음을 웅장한 대북과 함께 풀어 낸 연주곡

향단아-----소리 이에린

우리나라 대표 판소리 '춘향전' 中 이몽룡을 연정하는 춘향의 마음을 향단아와 그네를 타며 나누는 모습을 담은 곡

사랑노래-----보컬 한재영

사이코시스 사랑으로 인한 내면의 혼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깊고 집착적인 사랑의 마음을 모듬북과 실내악 연주로 작곡

이별가-----소리 이에린

춘향이 이몽룡과 과거에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마지막 이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연주

판굿-----전통문화예술단 누리, 태평소 박근형

판굿은 진법의 다양함과 껌이들의 연주 기량, 춤사위 등으로 전통 풍물굿이 지닌 악樂, 가歌, 무舞의 특징을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방승환의 호남우도 농악 부포놀이-----쟁과리-방승환, 태평소-박근형전통문화예술단 누리

방승환의 부포놀이 벼슬새는 느낌의 미학이다. 곳거리의 섬세한 발동작과 몸놀림은 마치 학이 노니는 모습이며, 여백의 미와 하얀 꽃송이가 하늘거리듯 정·중·동의 멋을 느낄 수 있다.



팽과리 명인 방승환

- 전통타악연구소 소장
- 한양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
- 전라남도문화재위원



태평소 명인 박근형

- 국가무형문화재 제 34호 강령탈춤 이수자(악사)
-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 5호 최영장군 당굿 이수자(악사)
- 천상음 예술단 예술감독



보컬 한재영

- 39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수상
- '유랑극단' 팔공산 역
- mbc 창사특집 뮤지컬 '이육사' 미우라고 역



소리 이예린

- 대한민국 여성전통예술경연대회 학생부 대상
- 오버더 페창 '문전본풀이' 공연

예술의
결점으로

연출 송상인

한얼국악예술단/전통문화예술단 누리
유형열, 이재일, 이예린, 정대석, 안영권, 강성욱, 정성용

국악실내악단 비상
김문선, 권태은, 이경주, 김기욱, 박준구, 윤송언, 강정민



한얼국악예술단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국악실내악단 비상

찾아가는 미술展

8 / 23(화) ▶ 9 / 6(화) (초막골생태공원)

9 / 7(수) ▶ 9 / 20(화) (당정근린공원)

- 군포시 초대작가

경기수채화작가회 - 김혜민, 박태선, 장인숙 / 로아트 - 고주형, 송상원, 이마로

아심회 - 김수경, 서은희, 석미경 / 어울림 - 성은지, 정민정, 홍해경

열린화가협회 - 박정일, 이경희, 하명인 / 예여울회 - 김미란, 김지연, 최미애

예인회 - 김정희, 김희숙, 박순옥

- 참여작가

지부장 배선한

고 문 강희진 / 이상훈 자 문 임혜랑 / 전창봉 감사 김훈섭 / 김민경

수석부회장 신재은 / 부회장 서홍자 / 사무장 지미혜

서양화1분과 황순례 / 서양화2분과 신미정 / 수채화 이미우

한국화분과 서봉원 / 서예분과 권경애 / 디자인분과 백동열 / 청년분과 홍윤 / 정책위원장 장동률

강미숙 권경숙 권정인 김건석 김선희 김수선 김순심 김유란 김장희 김정희 김태균 김희정

노선순 류진숙 문미진 민유경 박영복 박영희 박정내 배문숙 서소남 서향숙 성영옥 송인영

유연화 유영주 유혜진 유호현 윤종임 이경애 이선자 이영진 이은순 이지수 이현숙 이화영

임희령 전경애 전상애 전연실 정연순 최용천 최형순 홍순용



찾아가는 사진展

8 / 23(화) ▶ 9 / 6(화) (초막골생태공원)

9 / 7(수) ▶ 9 / 20(화) (당정근린공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되어!

군포거주 사진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군포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소통하기 위한 전시회

참여작가

박정식	동궁과 월지의밤	별빛 흐르는밤
성주희	겨울나들이1	겨울 나들이2
임효례	우리는 하나1	우리는 하나2
이안순	목가적 풍경1	목가적 풍경2
김재수	도담삼봉	보밭재의 가을
한중원	봄 소경2	봄 소경2
김영숙	바람의 여행1	바람의 여행2
윤순영	자화상1	자화상2
이자경	갯벌 소경	낭도의 아침
정명렬	red1	red2
홍현숙	미생의 다리	방화수류정
이상경	추경1	추경2
오세충	백두산 둘레길1	백두산 둘레길2
이경옥	수리산 꽃 벽화	바람꽃
이영남	시선1	시선2

이영우	그대 이름은 장미1	그대 이름은 장미
최용자	호수의 노래1	호수의 노래2
강민주	육지의 안개	바다의 안개
송두상	미소	양귀비
윤석구	방화수류정	수원성
김향엽	지리산의 봄1	지리산의 봄2
유영환	마음은 청춘	넘치는 스릴
정연택	상고대	설국을 담다
조영수	봄봄	봄
한상택	튤립 축제1	튤립 축제2
황진이	섬으로 가는길1	섬으로 가는길2
황해옥	나의 정원1	나의 정원2
윤세명	비상1	비상2
한재수	빈자리	꽃자리



군포문인협회 사회집 발간

여덟 번째 사회집 『그 길에 있다』

길은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어디쯤,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 내가 접어든 골목길이 제대로 온 것인지, 잘못 들어온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일, 숲 속의 두갈래 길처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능해 보는 일 등 '길'이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화두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이, 길에서 쉬를 얻는 사람, 길을 잃은 안타까운 삶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1부 고샅길 내비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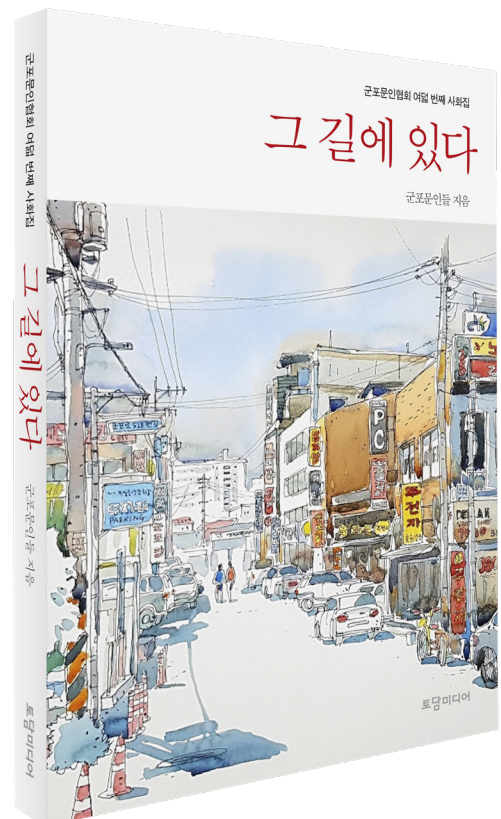
곽현정	미아가 되지 않을 운명
김계종	동승동 골목길에서 길을 잃다
김영래	아주 오래된 산보
김형숙	산본 골목 시장
노춘래	골목 끝 막다른 집
박건자	시간의 새얼굴
박현태	그 골목에 있다
양윤정	생의 모서리에 서서
오은희	전나무 숲에서 길을 묻다
유시경	골목길, 그 행간을 더듬다
이순금	온양장 구경
이은영	백곰의 산본 추억 밝기
차영순	골목길처럼 패인 인생의 훈장
최남희	최씨네 세 자매의 시간여행
박소명	의자와 골목대장

2부 길찾기 맵

김동호	갈림길
민선숙	꿈을 꾸는 자 갈림길에서도 길을 찾는다
원순옥	결혼과 미혼, 종교의 갈림길에서
유경희	갈림길
이옥분	역사의 갈림길 / 세조와 단종의 길
이은희	청춘의 갈림길에 선 나의 아들에게...
이형철	어린 시절 흙, 그리고 친구와의 갈림길
장윤숙	길을 생각하는 시간
전현하	수리산 임도오거리
조병무	U턴의 갈림길
채찬석	수리산 갈림길
최혜영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의 길
임병용	마음의 갈림길

3부 모랭이를 돌며

김수경	길모퉁이에서 나를 만난다면
김영희	신 조침문(新 弔針文)
김용선	그 자룻집
김용하	시가 오는 길
윤여선	다들 속에 어울림
이진옥	부처모랭이
임현숙	여름 산행
장은아	길모퉁이를 돌면
차화자	꽃수레
한명숙	기억의 모퉁이, 젊은 날의 초상
김현숙	어둠, 그 통로



제19회군포
예인예술제
The 19th gunpo artist festival

예술로
다시 모두의 곁으로

(사)한국예총 군포지회 지부장단



(사)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유형열



(사)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김은희



(사)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오은희



(사)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배선한



(사)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조현건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회
지부장 신지균(신나)



(사)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황일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임효례

제19회 군포

예술인 예술제

The 19th gunpo artist festival

예술로
다시 모두의 걸음으로

WWW.gunpoart.or.kr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시문화예술회관2F)
TEL: (031)392~4511 / FAX:(031)392~3773

주최 | **군포시**  **FACO** 한국예술
문화재단 문화재단 군포지회

주관 |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음악협회